

‘차례상 민심’ 잡기...추석연휴 5黨5色 행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정당이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는 지난 29일 오전에 용산역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후에 서울역을 찾아 각각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전 용산역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지하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역 북부 서울시설사업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다시 역사를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오후 서울역을 찾아 시민들의 즐거운 한가위를 기원했다.



한반도 위기 해법 찾고 여야 협치 틀 마련 고심

문대통령, 추석 연휴 관저 머물러 정국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번째 맞는 추석연휴 기간 주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정국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물꼬가 트인 ‘협치’의 흐름을 살려 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문 대통령으로서 여야정 협치의 ‘틀’을 갖춰나가는 게 현시점에서 긴요해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야권을 끌어안아 상설협의체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여야정 협치를 실질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는 ‘반쪽 협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협치의 틀 안으로 한국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국회화에서 각종 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 구상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한반도 위기 해법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도달한 북·미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 국면을 끌어내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북한을 향해 평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온 것은 자칫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최근 북·미 사이에 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책도 모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의 당대회 종료 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해 경직된 대중국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일일 교통 통신원 체계를 비롯해 차례상장·지방 전통시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감사 전화를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관저에 머물러 정국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물꼬가 트인 ‘협치’의 흐름을 살려 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문 대통령으로서 여야정 협치의 ‘틀’을 갖춰나가는 게 현시점에서 긴요해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야권을 끌어안아 상설협의체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여야정 협치를 실질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는 ‘반쪽 협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협치의 틀 안으로 한국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국회화에서 각종 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 구상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한반도 위기 해법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도달한 북·미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 국면을 끌어내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북한을 향해 평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온 것은 자칫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최근 북·미 사이에 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책도 모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의 당대회 종료 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해 경직된 대중국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일일 교통 통신원 체계를 비롯해 차례상장·지방 전통시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감사 전화를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관저에 머물러 정국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물꼬가 트인 ‘협치’의 흐름을 살려 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문 대통령으로서 여야정 협치의 ‘틀’을 갖춰나가는 게 현시점에서 긴요해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야권을 끌어안아 상설협의체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여야정 협치를 실질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는 ‘반쪽 협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협치의 틀 안으로 한국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국회화에서 각종 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들 차례시장·소외계층 방문 등 민심 다지기

추석 연휴 동안 국회가 휴지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열흘간의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일제히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이들은 대부분 각자 차례시장과 공공업무 현장, 소외계층 방문 등을 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자양골목시장을 방문,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들었다. 이어 2일에는 인천항 여객

취했다. 이어 2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만나 고민을 청취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우선 고향인 경남 창원에 있는 선진산소를 찾아 성묘한다. 이후 연휴기간 동안에는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방미 일정(10월 23~27일)을 준비하면서 정국을 구상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데다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주 권한대행은 우선 10월2일 지역구 내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파악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이를 두고 ‘통합파’와 ‘자강파’가 격론을 벌이는 상황에서 맞은 이번 추석 연휴는 주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보수민심의 향배를 가능한 좋은 기회로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추석 연휴 동안 재충전을 하면서도 차기 총선 출마지역으로 정한 인천 연수구 민심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추석 뒤 국감 ... 연휴 반납한 의원들

1일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는 고향 가는 차량으로 긴 행렬을 이루고 주요 터미널과 역은 북적거리지만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쉬지않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국감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가 끝나고 불과 사흘 뒤인 12일부터 시작되는 탓에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연휴 기간을 일정 부분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힘써야하는 상황이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감은 평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의원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의원 보좌진들의 경우 의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을 입증할 무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연휴에 돌입한 지난

20일 밤 여의도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사무실은 불이 환히 켜진 곳이 한 곳이 아니었다. 일부 보좌관들은 자체적으로 연휴 시작일을 며칠 미룬 채 출근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은 “연휴 동안 피감기관이 쉬는 관계로 미리 받아놓은 자료를 분석하려고 나왔다가”며 “국감 일자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길어 연휴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감에 돌입하는 만큼 연휴 동안의 준비 정도에 따라 국감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보좌관들이 자발적으로 연휴를 일부 반

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가 이전 보수정권과 현 진보정권의 정책을 두고 대충돌을 예고한 상태라 어느 때보다 충실한 국감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낱알이 드러내 보이겠다고 밝힌 상태며,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혼선과 실책을 드러내 제동 걸겠다고 버리고 있다. 의원실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장 열흘이나 되는 연휴가 온데 말없고 쉴 수 있는 날은 출점이 3~4일에 불과하다.

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관은 “보수정권 때 문제점을 부각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라며 “추석날과 추석 전후만 빼고 연휴 10일 가운데 나머지는 집이

HNT 하나투어

나는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떠난다! 무안출발 해외여행!

<p>캐주얼 ATPF01_TW2</p> <p>지우편 천등날리기 체험 대만·야류·지우편·단수이 5일</p> <p>총 상품가격 5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17년 11월 3일~18년 2월 28일</p> <p>티웨이항공(TW항공)</p> <p>야시장 관람, 지우편 관람, 특식2회 (샤브샤브, 몽골리안바베큐)</p> <p>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p>	<p>캐주얼 AVPF11_VJ1</p> <p>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옌뜨 5일</p> <p>총 상품가격 5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p> <p>비엳젯항공(VJ항공)</p> <p>차맥야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불고기, 락비엳레트스탕, 노니보쌈정식)</p>	<p>클래식 AVPF13_TWA</p> <p>호이안 야간시티투어(\$30상당) 다낭·호이안·후에 5일</p> <p>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17년 12월 20일~18년 3월 2일</p> <p>티웨이항공(TW항공)</p> <p>호이안 투본강 투어(\$30 상당), 후에전동카(\$10상당), 특식4회(CK뷔페, 풀문, 궁중식, 미담란현지식)</p>
---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정보료, 관광진흥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여행사)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순에 따라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습니다. ■(관광사)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여행) 출발일 10명 기준/호출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문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무 2. 여행 지역 3. 여행 일자 4. 여행 길이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전경거래소 상장기업 |